

## 부활과 새로운 삶

인생은 투쟁의 역사이다. 삶을 위해서 아귀다툼을 해나가야만 생존해 갈 수 있다. 사실 요즘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 정치계나 실업계, 심지어는 종교계에서까지 내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하는 치열한 경쟁이 설새없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 질병, 빈곤 등은 이러한 삶의 투쟁을 빚어내고 또 그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권투, 배슬링 시합 광경에 몹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살과 살이 마주 부딪치는 비정하고도 냉혹한 싸움,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단편이 아닌가? 매일의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투쟁, 경쟁, 긴장을 느끼지 않을 때라고는 없다.

그리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경쟁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싸움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베들레헬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역사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인류 역사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의 일생은 화해의 일생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는 보통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생활고나 질병, 그리고 자연의 힘에서 받는 피해와는 다르다.

그는 하나님과 역사, 세계와의 화해를 성취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참 신앙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에 동참하는 생활이다. “악마의 전략에 대항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시오. 우리는 철육을 가진 인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와 권력과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암흑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엡 6:11-12). 싸움이 없는 신앙은 도피의 신앙이요, 이교도들의 미술 신앙이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투쟁의 생활에서 화해를 성취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본래 십자가(cruix)라는 말은 고난을 뜻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인간고의 의미를 상징하며, 인간이 고난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를 해명해 준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운명인가? 선조의 죄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채 짚어지고, 그 한계점을 분명히 가리켜 주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역설을 보여 주는 것이 십자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의 사실이 없었던들 참패의 사진이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투쟁, 곤고, 모순을 하나의 묶음표 안에 넣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변질시켜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묶음표 밖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묶음표 안에 있는 인간의 삶의 실상을 바꾸어 버린다. 즉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묶음표 밖에 있는 마이너스 기호가 가지는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힘인 것이다.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가 백인의 총칼의 위협 앞에서 대담하게 싸울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이런 용감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흑인 지도자는 “모든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의 운동은 실패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운동이 승리할 것을 내다 보고 있소”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이 있는 뒤에 그때까지 의기가 소침했던 제자들의 생활에 현저한 변화가 생겼던 것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요즘 <소망의 신학>이 새로운 신학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앙은 과거나 현재보다 앞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소망은 과거와 현재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신의 모순 즉 질병, 고난, 모든 인간고 안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순을 깨닫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

이처럼 인간고와 소망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가 하면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일도 역시 따지고 보면 소망을 걸고 기대하는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일을 걱정하고 돌보는 일, 그리고 돌보는 일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부활의 신앙에서만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현세적인 사랑에만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대한 깊은 신앙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된다.

부활의 신앙과 천국 사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불교에서처럼 개인의 의식이 없어지고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교의 천국은 이 세상 안에서 <나와 그대>와의 사귄 속에 이루어져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천국 사상은 현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토피아 사상과는 다르다. 현실의 인간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단절 충들을 극복하는 화해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천국 사상인 것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늘 나라는 죽은 후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교적인 사상에 매혹되기 쉽다. 지금 현재있는 천국, 그러나 주의 재림 때 비로소 성취되어질 천국—Now and not yet! 이것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역설적인 성격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은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했다. 사람은 언제나 남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의식하고 파악한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지닌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를 충분히 자기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관계이며 창조적인 생활이다. 한 포기의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꽃을 꺾어버릴 때, 그는 꽃의 의미를 성취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자신의 인간됨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에는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잠재성을 사랑으로써 관찰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돌보아 주는 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의 <의미>만을 발휘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기만 하면 결국 자신의 <의미>마저 상실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기주의자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자신을 가장 미

워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여기에 인간 관계의 역설이 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이 바로 하늘 나라의 비밀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존재되는 공동체 가운데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이 공동체가 바로 부활의 신앙에 뿌리 박은 교회의 참 모습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소망으로 사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천국 백성의 삶의 실상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인간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영원한 삶의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현실 생활 속에서 창조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생활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도 믿음의 생활을 위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 (Hope against hope)을 하게 된다.